

SINCE 1986

선보가족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SUNBO FAMILY



SUNBO Ind Co.,Ltd.

부산광역시 다대동 1517-2

TEL:051-261-3454

Http://www.sunboind.co.kr

2007년 8월 15일 수요일 | 제43호 |



올 하반기 목표달성을 위한 사원들의 인식개선 필요

휴가철이 끝난 후에도 지칠 줄 모르고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때문에 자칫 근무 태도가 흐트러지기 쉽다. 이에 안전에 대한 인식을 재점검하고 올 하반기 목표달성에 한걸음 다가서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알아보자.

상반기, 근무환경의 혁신적 변화

지난 상반기에는 근무환경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함께하는 아침체조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부터 눈에 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전반적인 공장 환경도 많은 변화를 했다. 자재가 쌓여서 차와 사람 모두가 진입하기 힘들었던 공장마당이 정리정돈을 통해 깔끔해진 모습이다. 공장 밖과 마찬가지로 공장 안은 안전통



로 확보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사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자재창고 또한 많이 정리 된 모습이다.

이에 임영삼 부장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가 이제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리정돈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사원 개개인이 모두 이러한 것들이 점차 정착되고 유지될 수 있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에도 안전 또 안전!

우리 회사는 매주 수요일 안전교육을 실시해왔다. 안전교육 담당 임영삼 부장은 "무사고 무재해를 목표로 하는 만큼 일할 때 유의해야 할 점과 그로 인해 개선되어야 할 점 등을 위주로 진행됐다. 교육을 한 만큼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진행 중이다. 공장 내 안전은 교육해 온대로만 한다면 문제없을 것"라고 전했다.

하지만 안전에 관해서 늘 안심하기는 어렵다. 회사 전반적인 부분에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 하나 자칫 방심하면 미흡한 부분이 또 드러나기 일쑤다.

임영삼 부장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물건 모두 정해진 위치, 있어야 될 자리에 위치해야 한다. 스스로가 안전의식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회사 자체도 변화, 발전하기 어렵다.

하지만 상반기 때도 안전점검이 차근차근 진행되어 온 만큼 하반기에도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신입사원 등은 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적당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안전은 타인과의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아닌 모두의 배려가 필요하다. 이 따뜻한 배려로 무사고 무재해가 유지될 수 있는 한 해를 보내야 할 것이다.

우리 회사 장명우 고문 "KNN 지역재발전시리즈 2 특집토론 남해의 미래"출연



우리 회사 장명우 고문이 지난 1일 방영된 "KNN 지역재발전시리즈 2 특집토론 남해의 미래"에 출연했다. 이날토론에는 장명우 고문

을 비롯해 하영제 남해군수, 박정삼 재부산 남해항우회 회장 겸 백송종합건설 대표, 백점기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방송에서 장명우 고문은 "남해 조선소 유치에 대하여 세계 2, 3위 조선업체 삼성과 대우조선해양의 호황으로 지역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거제의 경우를 남해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조선소가 들어설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잉, 중복투자와

함께 환경훼손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철저하고 주도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생산성 경영체제 등급 확인



우리 회사가 본사 및 사업장 경영시스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심의결과 4Plus 등급(성숙도 2단계)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이는 생산성 및 경영역량 등급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혁신활동의 노력의 결과다.

이를 토대로 우리 회사는 지속적인 생산혁신 활동을 준비 중이며 향후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인증발효일인 2007년 6월 15일부터 2010년 6월 14일까지다.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

이기는 사람은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지는 사람은 실수했을 때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기는 사람은 아랫사람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사과합니다. 지는 사람은 지혜있는 사람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지는 사람은 게으르지만 늘 '바쁘다 바쁘다'며 허둥댁니다.

이기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씩니다.

지는 사람은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고 흐지부지 씩니다.

이기는 사람은 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는 사람은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과정을 위해 살고 지는 사람은 결과를 위해 삽니다.



제 1 회 선보 여름 사진 공모전

가족, 연인과 함께 즐거운 여름의 추억도 공유하고 경품도 탈수 있는 "선보 여름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8월말까지)



응모자격 및 응모 방법

- 응모자격 : 선보가족이면 누구나 가능
- 응모기한 : 2007년 8월 31일
- 응모방법 : 개인별로 원본사진 혹은 파일을 관리부 "안정빈" 과장(내선 533)에게 제출
파일 : WWW192168.0.58WP_그림 사진WV 여름사진 공모전 폴더에 파일 이름을 개인 이름으로 변경

심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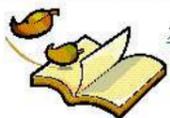
- 심사위원 : 사진동호회 회원 및 임원
- 심사기준 :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 및 작품성

시상 내용

- 대상(1명) : 강촌 뷔페 식사권 2매 + A3 액자(사진포함)
- 은상(2명) : 문화상품권 2매 + A3 액자(사진포함)
- 동상(3명) : 영화 관람권 2매 + 5x7 액자(사진포함)

※시상 작품은 다음달 사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사진 제출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언제든지 안정빈 과장(내선 533)에게 연락 바랍니다.

- 선보공업 주식회사 관리부 -



최홍렬상무의 **이한권의책**

상사가 귀신같아야 부하가 움직인다

회사라는 조직은 날마다 생사를 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 목적은 이기는데 있는 것이 지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회사라는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 역시 오로지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그야말로 적자생존의 세계이며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는 패배하는 세계인 것이다. 그래서 강하지 않으면 존재 그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이 책에서는 조직 속에서 특히 힘든 입장에 있는 중간 간부, 경영 간부들에게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간부가 되기까지 별 큰 잘못 없이 지낼 수 있었다는 정도에 만족하며, 약해져 있는 중간 간부들, 그들을 단련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들은 타성에 젖기 쉽고, 나태해 지기 쉽다. 그런 모습을 재인식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섯 파트로 나누어 사례를 들어가며 이야기를 풀어간다. 조직에서 상사가 해야 할 일, 부하를 강하게 만드는 법, 경쟁사회에서 살아남는 법, 조직을 성공시키는 방법 등 중간 간부 이상의 관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마음을 사로잡는 1분 스피치

이 책은 경영자, 중간 관리자, 영업사원 그리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화술을 지니고픈 모든 이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회사의 아침회의나 영업미팅, 비즈니스, 일상생활 등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듣는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만한 87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직원들에게 프로 의식을 심어 주고자 할 때, '즐거움'을 알리는 직장 분위기를 바꾸고자 할 때, '중간관리자나 경영자에게 배려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등등 언제 그 이야기를 하면 좋은지까지 제시되어 있어, 목차만 보고도 그날에 필요한 내용을 찾아 활용할 수 있다.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서류가방에 넣



고 다니며 필요할 때마다 들춰 보라. 아침조회 시작하기 5분 전에, 영업미팅을 하러 가는 자차철 안에서 수시로 읽어보며 적절한 이야기를 고르라. 이 책에 실려 있는 87가지 이야기를 절반쯤 활용하고 나면 부하직원이나 동료, 직장상사, 영업 관계로 만나는 사람들의 당신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당신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는 화술 리더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뷰 사진 동호회

우리 회사는 회사 내 직원들 간의 친목도모와 자아육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동호화활동을 적극권유하고 지원하고 있다. 다소 무료할 수 있는 회사생활의 단비 같은 존재인 동호회. 회사 내 동호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자.

“렌즈 속에 비치는 또 다른 세상”



그림 같은 풍경을 오랜 시간동안 눈에 기억해 두기란 쉽지 않다. 그 아쉬움을 달래려는 걸까. 사람들은 카메라에 풍경과 함께 그 당시의 기억 모두를 담는다.



간도 갖는다.



이처럼 때로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람들과 함께 하고픈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사진동호회' 사람들이다.



사진동호회 회장인 안정민 과장은 "얼마전 보림사와 두구동 일대, 칠암 등으로 출사를 다녀왔다.



사진동호회는 사진 찍는 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4년 6명의 인원으로 시작해 3년이 흐른 지금은 그때의 두 배 인원인 12명이 활동 중이다.



연꽃이 한창 필 때가 보림사를 들렀는데 태풍 때문에 꽃잎이 많이 상해 아쉬웠다. 좀 더 멋진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칠암에서는 등대를 배경으로 한 바다촬영도 이루어졌다. 안 과장은 "태풍이 지나간 후 하늘이 맑아날이 다소



한 달에 한번의 정기모임과 출사, 2주에 한번씩 수요일에는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카메라 이용법 등 카메라 혹은 사진의 전반적인 기술에 대해 배우는 포럼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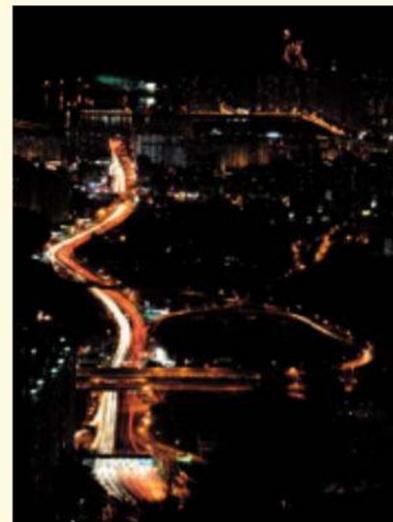
더웠다. 그래서 사진 찍는데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서로서로 찍은 사진은 공유하다 보니 더위를 느낄 새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열심히 일한 후, 달콤한 휴식

평소 업무에 지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멋진 풍경을 눈에 담는다면 이러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좋은 풍경을 눈으로 보는 순간 지친 몸과 마음은 온데간데 없다고 말하는 안 과장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호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얼마 전



사진동호회 홈페이지 주소: <http://cafe.naver.com/sunbopic>

이달의 책 추천



홈페이지 사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5분을 매달 말일 추천하여 이달의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또한 사보 게시판에서 숨은그림찾기 정답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달에는 추천을 통해 <관리부 윤강재 과장>, <관리부 황영욱 기사>, <설계부

최순찬 과장>, <생산관리 최재호과장>, <설계부 오창배 사원>이 이 달의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이달의 책은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읽고싶은 분들은 자유 대출 하세요.





17호 칭찬 릴레이

자재 운영팀 김태균 기사

막내지만 열정이 부럽지 않은 열정으로

선보가족의 17호 칭찬주자로 추천합니다. (추천인:한진우)

적재적소에 자재를 현장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항상 일을 함에 있어서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자기가 맡은 업무에도 충실해요.

칭찬 릴레이 17호 주인공으로 선정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해야할 일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으로 선정되니 다소 얼떨떨해요. 저보다 칭찬받아야 할 분들이 훨씬 많은데 조금 쑥스러워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더욱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세요?

모든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무엇보다 일의 흐름을 끊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해요. 자재가 부족하면 다음단계로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자재를 빨리빨리 챙겨주려고 항상 바쁘게 일하는 편이에요. 선보에 입사한지 2년 6개월 정도 됐는데 그 시간 동안 여유로웠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빨리, 바쁘게 일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이 별 탈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면 그것만큼 뿌듯한 일이 또 있을 까 싶어요.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일할 때 힘든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무거운 것을 들 때가 많아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운반하는 과정에서 자재가 분실됐을 때 오는 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해요. 자재를 분실하게 되면 다음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니까 평소엔 자재 분실을 최소화하려고 한시도 늦추지 않고 늘 집중해서 일을 해요.

18호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을 추천해 주세요

제가 자재 운영팀의 막내라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으로 칭찬하고 싶은 선배님들이 너무 많아요. 일적인 면이나 개인적인 면에서 많은 충고와 조언을 얻을 때가 많거든요.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자재 운영팀의 김기주 사원을 다음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으로 칭찬하고 싶어요. 사실 일을 하다보면 사람들 간의 일이트 업무에 관한 일이트 짜증날만한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묵묵히 자기 맡은 일을 우직하게 처리해내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 자체를 즐기려고 하는 자세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8호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으로 김기주 씨를 추천하려고 해요.



생생 현장의 소리

“이제는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어요”

굳은 심지(心地)의 대명사- 최동배 차장

평범한 심지에 어느 누군가의 순수한 열정을 쏟아 부었다면 그 심지는 얼마나 뜨겁고 활활 타올라까. 20대의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시작해 1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어느덧 누구보다도 굳은 심지를 갖게 된 최동배 차장을 만나보았다.

평소 어떤 일을 하는지, 일할 때 마음가짐은?

현재 구매부에서 일을 해요. 구매부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서 중 하나죠.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차근차근 확실하게 풀어나가야 하니까 무언가를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런 점으로 미루어볼 때 그 초석을 깔고 닦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후공정을 비롯한 생산 등 모든 분야에서 가능한 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 물론 사람들 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입사 당시 선보의 모습은? 지금과는 어떤 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나요?

15년 전과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저 같은 경우에 입사 초기에는 맡은 업무가 정해지지 않아서 생산관리부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부서체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일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 많

이 힘들어했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지금은 웃으며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정말 힘이 들었어요. 지금과 많이 다른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회사 내 환경의 변화를 꼽을 수 있어요. 그때와 달리 지금은 효율적인 업무 분담과 명확한 부서체계가 많은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발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선보에 하고 싶은 말 등 마지막 한마디를 한다면?

입사 초기에는 힘들었다는 얘기밖에 안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지금의 모습에 피가 되고 살이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다보니 특별히 힘든 점은 없어요. 다만 선보 가족들에게 바라고 싶은 점은 모두가 “내가 사장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해요. 뿐만 아니라 업무환경을 조성할 때 옆면을 보기보다는 앞만을 볼 수 있는 비전제시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0대의 순수한 열정을 가득 안고 정신없이 달린지 15년째인 최동배 차장. 누구보다도 굳은 애사심으로 15년째 묵묵히 선보를 지켜왔다. 그에게도 선보는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화려함과 특별함보다 평범함이 돋보이는 그가 오늘도 인생의 일부를 선보에서 보내고 있다.

<p>축하합니다</p>	<p>본사공장</p> <p>생일</p> <p>고객지원팀 이수근 (9/1)</p> <p>관리부 최문정 (9/11)</p> <p>생산1팀 유문열 (8/28)</p> <p>생산2팀 조병훈 (9/11) 김철곤 (9/15)</p> <p>생산3팀 김희규 (8/22)</p>	<p>이희중 (8/27)</p> <p>이영동 (9/1)</p> <p>이은식 (9/8)</p> <p>설계부 이종원 (9/11)</p> <p>영업부 유우성 (8/23) 김미란 (9/5)</p> <p>입사일</p> <p>관리부 이종연 (9/11)</p> <p>사외출류팀 류승진 (8/20)</p>	<p>생산3팀 이은식 (8/16) 박수훈 (9/6) 허현 (9/7) 김수환 (9/13)</p> <p>설계부 이종원 (9/10)</p> <p>품질보증부 최종민 (8/24)</p> <p>구평 공장</p> <p>생일</p> <p>구매부 이동준 (8/17)</p>	<p>생산부 이태욱 (8/20)</p> <p>생산관리부 김광욱 (8/27)</p> <p>설계부 민병철 (8/21)</p> <p>품질보증부 박찬일 (8/20)</p> <p>영도 공장</p> <p>생일</p> <p>생산관리부 신재석 (9/15)</p>	<p>입사일</p> <p>생산부 최성호 (9/12)</p> <p>생산관리부 표종원 (8/24)</p> <p>설계부 박오권 (9/11)</p> <p>품질보증부 김영호 (8/24)</p>
---------------------	---	--	--	---	---

“선보가족”은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선보가족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 가족들의 편지나 자녀의 일기, 여행 이야기 등... 다양한 글을 빨간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예쁘게 편집하여 사보에 실어드리고, 덕으로 사보와 함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051-260-5535 011-7435-3454 윤강재 과장

틀린 그림 찾기(5개)

